

~~~~~ 뼈빠용은 自由를 찾아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랫동안 셋방을 전전하면서 「내집」장만에 신경을 써오던 터에, 비록 평수는 작지만 그래도 내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입주신청에서 당침을 거쳐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류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저버리지 않았던 기대와, 이삿짐을 옮겨 놓고나서야 비로소 실감하던 흐릿함도 잠깐, 갑자기 달라진 생활양식에서 오는 새로움이 차분한 안정감보다 오히려 어수선한 기분을 갖게 한다.

근래에 갑자기 유행하게 된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더러 신문이나 잡지에서 아파트생활의 장단점을 읽은 일이 있었고 가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보고 느낀 것이 내가 아는 아파트의 전부였다. 그리하여 나는 아파트생활은 매우 편리한 것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 이에 대하여 세밀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아는 한 「집이란」담이 있고 대문이 있고 들어서면 넓건 좁건 마당이 있고 대청과 방이 보이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입주한 이 아파트는 아무리 보아도 집같지가 않다. 공간에 매달린 창문 몇짝으로 표시되는 15평 면적이 내집의 전부인 셈인데, 특히 3층의 「내집」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을 때면 으레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된다. 대문 앞에 붙어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짐둥이의 킁킁대는 소리에 짹짹 끄는 슬리퍼 소리가 묻어나오는 그런 귀가가 아니라 열쇠 한번 돌리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허전한 귀가 풍경. 현관안에 있는 몇개의 방들은 방의 숫자나 크기, 모양, 위치가 모두 하나같이 사각형들이다. 그리고 더욱 불쾌하게 생각되는 것은 내집

과 남의 집이 똑같다는 사실이다. 아파트에 들어있는 수천세대의 수천개의 방이 모두 내 방과 같다는 사실, 오직 문열쇠에 톱니가 하나 더 있느냐 덜 있느냐, 그것이 안으로 굶었느냐 밖으로 굶었느냐에 따라 내집과 옆집이 구별된다는 그 말초신경적인 차이가 불쾌하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규격화의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제각기 다른 질감을 다른 실내장식을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한다. 옆집은 커튼을 노랑색으로 하고, 건너집은 파란색 커튼을 한다. 이 커튼색은 우선 밖에서

아파트 入住有感

~~~~~  
 봐서 그 집 주인의 개성을 파악하게 하는 유일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별집같이 뚫린 똑같은 많은 가정 중에서 제각기 자기 집을 칩사리 가려내는 한가지 표지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아파트를 멀리서 바라보면 창문 빛깔이 마치 어린이들의 色紙圖案처럼 울긋불긋 곱다. 그리고 아파트의 주민들은 숲처럼 林立한 아파트속에서 커튼 색깔로써 자기 집과 옆 집을 손쉽게 구별해 내는 것이다.

우리집에는 애가 하나 있다. 그리고 옆집에

## 아파트住民들은 감방의 不自由를 감수해~~~~~

도 같은 또래의 애가 하나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보아도 거의 같은 차림을 한 같은 또래가 많은데, 아마 그것이 15평에 사는 이 가정들이 가질 수 있는 아이의 수와 그 연령층, 또는 그들의 부모들이 누리는 생활 정도를 표시해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여기에 이사와서 아이에게 제일 먼저 집의 호수를 가르쳤다. 그랬더니 이 애가 어디서나 이 호수를 정확히 외워대는 바람에, 신기한 것은 고사하고 난처한 경우가 없지 않음도 깨달았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李貞德  
〈東國大師大副教授·兒童學〉

집소재를 밝힘으로써 이 집의 프라이버시가 무너질 것은 물론, 도둑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만 같아 적인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집 아이만의 새로운 버릇이 아니었다. 옆의집 아이도, 또 건너집 아이도 특하면 자기집 번호를 자랑스럽게 외워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때때로 이 아이들이 외는 번호가 흡사 감방의 죄수들에게 매겨진 囚人번호와 같다는 생각을 문득 떠올린다. 죄수들이 앞가슴에 번

호를 붙이고 있드시 이 아파트의 집집마다에는 문에 하우스 넘버가 붙어 있다. 이 죄수 아닌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기 운명처럼 자기의 집 번호를 달고 감방아닌 감방생활을 하고 있다. 한 형무소안의 많은 감방처럼, 한 아파트에서 각 가정은 집이 아닌 몇개의 방을 점유하고 사방십여미터의 콘크리트에 갇혀 서로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날이었다. 방안에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진동소리가 났다. 놀라 밖을 내다보니 약속이나 한듯 방마다 일제히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같은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때 영화 「빠삐용」에서 죄수들이 머리를 깎기 위하여 방마다에서 작은 창구밖으로 고개를 내밀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창문밖으로 내민 고개들이 「빠삐용」의 죄수들의 머리를 방블게 하지 않는가.

「빠삐용」이 갇혔던 독감방은 걸어서 불과 사방 몇발짝 남짓한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인 흡사 상자같은 방이었다. 그런데 이 15평 아파트는 기껏해야 사방열두발짝쯤 밖에 안된다. 「빠삐용」과는 달리 우리에게 이 감방에서 제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현관문이 하나씩 있긴하다. 그러나 그 현관문이나 「빠삐용」이 고개를 내밀고 머리를 깎고 밥을 얻어먹던 그 창구가 크게 봐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빠삐용」은 그래도 자유를 찾아 나비처럼 살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즐겨 이 감방의 부자유를 감수한다. 이방 저방을 접견이 열쇠로 채워 자기를 유폐시키면서 자기가 감방안에 든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냄새를 맡으며,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감옥아닌 감옥살이를 하는 운명의 有期囚인 셈이다.